

“소아암 환우와 가정에 희망·용기 주겠다”

최영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 이사장

심리 치유공간으로 ‘웰리스 교육지원센터’ 운영 나눔실천 통한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구현 최선

“백혈병에 걸린 소아암 환우들이 하루빨리 완치돼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나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최영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 이사장은 백혈병을 앓는 어린이들이 건강한 미래의 주인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생명존중과 사랑실천을 통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앞장 서고 있다.

특히 30년 이상 MBC에서 언론인 생활한 해오다 지난 3월 취임한 그에게는 이사장의 역할은 더욱 더 특별하고 소중하다.

최 이사장은 1995년 방송 PD 시절 ‘건강하게 삽시다’라는 의학 프로그램을 기획해 전남대학교 소아암 병동에 갔던 기억을 회상하며 ‘소아암 병동에서 본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병과 싸우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다’고 소회했다.

이어 “당시에 백혈병에 걸려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었다”며 “병을 완치한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지회 이사장의 역할을 맡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최 이사장은 “올 한해 지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소아암 발병은 아이들은 물론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하는 가족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고액의 치료비 부담은 여전히 환우 가정에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월 평균 소아암 치료비가 200만원 수준이라 웬만한 가정의 형편으로는 장기간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혈병에 걸린 아이와 부모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아 주기 위해 웰리스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며 “아이들에게는 심리치료와 미술교육, 요리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밴드를 부모에게는 천연공예와 도예체험

등을 운영해 장기간 투병과정에서 쌓인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치유·힐링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이사장은 “해마다 기부금이 줄어드는 탓에 소아암 환우 가정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지역사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고 있다”며 “광주 5개 자치구 환경미화원 노조연합회인 광주지자체노동조합과 전북중앙로타리 등에서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헌혈증서와 후원금을 마련해 지회에 전달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이 소아암 환우 가정에 희망과 용기를 전해준 지역사회 분들의 관심과 후원 덕에 작년보다 치료비 지원대상이 20여명 늘었고, 소아암 환우 가정에 1년간 16명에게 240만원씩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었다”며 “또한 웰리스 교육지원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감사함을 내비쳤다.

최 이사장은 “백혈병에 걸린 아이들이 병을 하루빨리 털어내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광주·전남지회에서는 소아암 가정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픈 자녀가 잘 치료받아 완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기자

동신대 산학협력단 김지은씨 지역사회서비스 사례 공모전 우수상



동신대학교는 산학협력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회서비스센터의 김지은(24·여) 씨가 전남도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수필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김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동보육시설에 맡겨진 5살 남자 아이가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심리적 불안 증세를 치료한 사례를 수필로 소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씨는 “A군이 많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겨 기분이 좋다는 가족들의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고 뿌듯하다”며 “내년 3월, 치료율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아이가 더욱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이창우 매니저 ‘창업기업 지원 육성’ 증기부장관상



동강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이창우 매니저가 창업기업 지원육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매니저는 최근 서울 GS타워 아모리스에서 열린 ‘2018 벤처창업진흥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창업분야 증기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난해 광주전남중기청장상을 수상한 이 매니저는 동강대 BI센터 입주업체를 관리하며 창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중기청 운영평가 16년 연속 최우수(S등급) 기관 선정’에도 기여했다. /김종민기자

광주 소방공무원 배드민턴대회서 응급구조



휴일 배드민턴 협회에서 주관한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한 소방공무원이 원인 불명의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내 화제다.

광주시 남부소방서 정형상 대원과 광산소방서 배영희 대원이 그 주인공들이다. 16일 오전 9시40분께 화순하남문화스포츠편에서 열린 ‘배드민턴 대회’에서 동료인 중 한명이 경기 후 대기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그 후 의식불명 상태가 돼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며, 당시 대기에 참가한 동료인들이 재빠르게 다가와 응급구조 활동을 펼친 뒤 화순소방서 119구급차에 인계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신속·정확한 현장 대처능력을 보여준 의인은 두 명의 소방 구급대원과 한 명의 간호사였다. 간호사는 아직 찾고 있는 중이다.

광주 광산소방서 배 대원은 “소방 대원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다”고 말했으며 “만약 다른 장소에서 이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다면 우선적으로 CPR(심폐소생술)을 시행해 119구급구조에 인계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당부했다. /문철현기자



목포경찰서 ‘2019 치안 예측’ 보고회

목포경찰서(서장 이용석)는 17일 노적봉홀에서 ‘2019 목포경찰 치안 전망 예측’ 주제로 이용석 서장과 과장, 계·팀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올해 치안 통계를 분석하고 현황에 따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년도 목표·신안 지역의 치안 전망을 예측해 치안 정책을 설정,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달산 해상케이블카 및 천사대교(가칭) 개통에 따른 목표·신안 방문객 증가로 인한 교통대책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관리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중 논의했다. /목포=정해선기자

향우회

●재광보성군향우회(회장 박세순) 제34기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개최=20일(목) 오후 6시30분 KT문화센터 4층(광주 동구청 뒤), 문의 062-222-0728



광주 고용노동청 ‘고용노동정책 국민자문단’ 간담회

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지난 14일 청사 회의실에서 ‘고용노동정책 국민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롯한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정책에 관심이 있는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선발된 국민자문단 12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정책, 중소기업지원, 일터 안전 분야 등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자문단에 참여한 대학생 변모씨는 “청년 교통

카드 혜택 확대, ‘면접 정장 대여 및 사진’ 지원 등의 의견을 냈다.

이밖에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 확대’, ‘기업지원제도 홍보 강화’, ‘산재사고 관련 사업주 노력의무 강화’ 등 일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졌다.

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 및 의견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적극 추진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본부에 건의해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임후성기자



전남도청노조 농기원지부, 연탄나눔 봉사활동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농업기술원지부는 지난 15일 나주시 관내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등 2가구에 사랑탄(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남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조금씩 모은 돈으로 연탄 1천장을 구입해 직접 배달했다. 한 독거 어르신은 “추운

겨울이지만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 마음부터 따뜻해 진다”고 말했다.

김선표 지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아 추운 겨울을 지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금처럼 꾸준히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김해영 국회의원 등 6명 보성군 홍보대사 위촉

보성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성의 위상을 높이고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 6명을 신규 위촉했다.

홍보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구),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정혜인 화순 교육지원청교육장, 서민호 청암대 교수, 대흥사주지 월우스님, 가수 피터핀 등이다.

홍보대사는 유력 정치인을 비롯해 교육·종교·예술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앞으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위촉식은 위촉패 수여, 군수와의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위촉식이 끝난 후 홍보대사들은 제16회 보성차밭 및 축제 점등식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보성=임병연기자



군은 앞으로 지역·세대·이념을 통합해 소통하고 공감 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한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군의 대외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며,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군정 홍보와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 등에 참여한다. /보성=임병연기자

전남정보문화진흥원 ‘콘텐츠 창작 공모전’ 시상식

전남정보문화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명원)은 최근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에서 ‘2018년 전남콘텐츠 창작 공모전’ 우수작품 총 17편을 선정, 시상식을 가졌다.

“문학에 디자인을 더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전남도 내 주요 문학관의 문화자원 상품화를 통한 지역문화 브랜딩 기반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87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공모전 대상은 보성 태백산맥 문학관의 소설 ‘태백산맥(조정래 작)’을 모티브로 휴대폰 케이스, 머그컵, 책갈피 등의 문화상품을 디자인 한

김경중(35)씨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에는 ▲태백산맥(조정래 작, 보성 태백산맥문학관 연계)의 착잔(김경중) ▲소쩍새를 때(장만영 작, 강진 시문학관기념관 연계)의 도어벨(양동욱 외 1명), 우수상에는 ▲향수(정지용 작, 강진 시문학관기념관 연계)의 향수 및 향수케이스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윤식 작, 강진 시문학관기념관 연계)의 시간차와 온도차 프로젝트(이정현) ▲풀잎(박성룡 작, 해남 땅끝순례문학관 연계)의 립발(최주희)이 선정됐다. 이밖에도 장려상 5팀, 장작상 6팀 등 총 16개 작품이 선정됐다. /김재정기자

최상준 전 회장, 적십자사 최고명예대장 수상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는 지난 14일 광주 경영자총협회 금요조찬포럼에서 최상준(사진 왼쪽) 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에 대한적십자사 최고명예대장을 수여했다.

대한적십자사 최고명예대장은 적십자 활동과 회비 납부 등 사업지원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각종 사회공헌활동 및 기부문화에 앞장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이나 기관에 수여하는 포장으로 누적 기부금 5억원 이상의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광주은행이 지난해 첫 수상을 했으며, 최 전 회장은 2번째다. 개인으로는



최초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돼 3년 간 중앙위원 직을 수행한다. /문철현기자

서부소방서, 소방관련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이성연)는 지난 14일 대회의실에서 서구 소방관련 업체 대표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접·용단 작업 시 가연물 제거 및 소화기 비치 ▲최근 개정된 소방관계법령 연내 ▲내선설계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



물의 소방시설 설치규정 안내 ▲청렴 민원행정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등이다. /최환준기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용수씨 김치현씨 부친상=발인:19일(수) 오전8시, 장지:영락공원(화) 연락처:본관지하1층5호(250-4405)

▲이인형씨(배우자:박정옥) 이재홍, 경원, 행원씨 부친상=발인:18일(화) 오후12시, 장지:영락공원(화) 연락처:본관2층9호(250-4409)

▲김중재씨(배우자:최규순) 김경길, 정남, 윤자씨 부친상=발인:18일(화) 오전8시, 장지:고흥군점암면 선영(화) 연락처:신관2층VIP에강(250-4470)

▲서상래씨(배우자:위종영) 서영필, 영옥, 금자, 금순, 영미씨 부친상=발인:18일(화) 오전7시, 장지:영락공원(화) 연락처:본관2층7호(250-4407)

그린강례식장(주) 24시 대기 TEL.062)250-4455 www.greenfuneral.co.kr